

이슈브리프



- 죽어야 사는 여성 연예인들의 인권
허 은 주 |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 동반자살과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젠더적 접근
김 영 택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다문화 사회에서의 학교 교육
오 은 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 미디어 속에 나타난 젠더 코드
박 혜 경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

죽어야 사는 여성 연예인들의 인권

- 고 장자연 씨의 죽음에서 기억해야 할 것 -

1) 죽어야 사는

허 은 주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지난 3월 6일 고 장자연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던 드라마에 출연하고 있었던 그녀의 죽음은 많은 이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관할 경찰서인 분당 경찰서는 고인의 죽음 3일 후인 3월 9일에 수사를 종결하고 수사 결과를 우울증으로 인한 단순 자살이라고 발표했다. 여자 연예인의 자살 사인으로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우울증’이라는 경찰의 발표는 늘 그렇듯 ‘의혹만을 남긴 채’ 사라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문제는 경찰의 발표 이후 몇몇 언론이 고인이 직접 작성했다는 소위 ‘리스트’를 공개하면서 시작되었다.

여성 연예인 가십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여성 연예인의 자살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때마다 경찰은 사인을 우울증이라고 말해왔고, 적지 않은 수의 여성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우울증은 여성 연예인들의 고질적인 직업병으로까지 인식되어왔다. 하지만 동시에 카더라 통신으로 존재하는 여성연예인 ‘성상납’에 대한 의혹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려왔다. 신인 여자배우가 성공을 위해 소위 높은 분들에게 성 접대를 하는 것은 ‘루머’로 보면 대중들에게는 익숙한 가십거리이다. 이런 관행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는 것에 비해 실제 성접대를 강요, 알선한 자가 처벌을 받거나 성접대를 받은 이들이 공개되어 처벌된 적이 없는 것을 보면 여자 연예인 성상납 문제는 권력형 비리이긴 하나, 정치인들의 뇌물 수수사건처럼 책임자 처벌에 대중적 관심이 모아지는 이슈는 아니다.

1) 한국여성 인권운동사(1999, 한국여성의전화)에 실린 “죽어야 사는 여성들의 인권 : 한국 기지촌여성운동사(정희진)의 제목에서 일부 인용

오히려 여성 연예인들의 성과 관련된 헐박성 사건이 이슈화되는 방식은 성적 스캔들이다. 각종 ‘비디오 사건’에 등장한 여자 연예인들은 모두 비디오를 빌미로 부당한 요구를 받아야했고, 보복성 비디오 유출의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여자 연예인’으로 회자된다. 심지어 ‘물의 연예인 컴백 논란’이라는 기사(스포츠서울 2009.1.29 기사)에서는 성매매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남자 연예인과 비디오 사건의 피해자 여성 연예인을 동일선상에 놓고 ‘물의 연예인’이라고 싸잡아서 다루고 있다. 여자 연예인은 ‘성’과 관련되어 신문 지상에 다뤄지지만 해도 물의를 일으킨 여자 연예인으로 취급되고, 섹스 비디오를 유출한 남성이 누군지, 그 자가 결국 처벌을 받게 되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언론은 별 관심이 없다. 따라서 사법적 처벌도 힘을 받지 못한다. 여자 연예인의 ‘성력(sexual history)’에 대한 대중들의 호기심과 그 호기심을 국민들의 알권리라고 포장하여 보도하는 황색 신문이 있을 뿐이다.

고 장자연씨의 죽음에 대한 루머도 그렇게 사라질 줄 알았다.

‘리스트’, 형편 없는 경찰 수사

그러던 중 사인을 ‘우울증으로 인한 단순 자살’로 정리한 경찰의 발표를 뒤집는 사건이 벌어졌다. 방송사가 고인이 작성했다는 ‘성접대 리스트’를 확보하였다는 언론 보도를 내보낸 것이다. 경찰은 언론의 리스트 확보 보도 이후 뒤늦게 전담수사반을 꾸렸고, 3월 16일 리스트가 고인의 육필로 작성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 감정결과를 발표하

기에 이른다. 하지만 경찰은 이후 수 차례의 수사 브리핑에서 ‘리스트’와 관련된 말들을 반복하기 시작하였다. 리스트가 고인의 육필로 작성된 것이 확인된다면 그 리스트에 있는 이들을 소환 조사할 것이 라던 경찰은 언론사로부터 이름이 지워진 리스트를 받아 실명이 없고, 급기야 문건과 관련된 리스트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리스트 자체를 부인했다. 이에 대한 경찰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경찰은 다시 최종 수사 때에 ‘문건에 누가 등장했으며 유족들이 고소한 피고소인들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에게 어떤 혐의를 두고 조사했는지 다 밝힐 것’이라고 장담했다. 하지만 경찰은 다시 ‘다 밝힌다는 의미가 실명 공개는 아니다’라며 주 3회 진행되던 수사 브리핑을 주 1회로 축소하겠다고 기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수 차례의 기자회견과 경찰에의 의견서 발송 등 고인의 죽음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주장해왔던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의 계속되는 말 바꾸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특검 청원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고인의 49재 날이었던 4월 24일, 경찰은 본 사건의 수사를 잠정 중단하겠다는 발표를 하기에 이른다. 그 핵심 내용은 총 8명의 수사대상자를 불구속 입건했으나 혐의가 확정돼 구속된 대상자는 없다는 것이었다. 더불어 경찰은 수사 대상자들이 사회활동에 바쁜 사람들이라 조사 일정 잡기가 힘들고, 피해자가 사망한데다 중요 피의자인 전 소속사 대표가 일본에 도피 중이라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수사에 성역이 있을 것이라는 대중적 우려는 보란 듯이 현실화되었고, 본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독점하고 있는 경찰의 수사 방식과 태도는 시민단체들의 ‘성역 없는 수사 촉구’라

는 구호를 무력화시켰다. 지난 4월 27일 일본 도피 중인 고인의 전 소속사 대표 김씨에 대해 한국의 체포영장에 해당하는 가구금 허가서가 발부돼 일본 경찰력의 투입이 가능해졌고 지난 5월 14일 김씨의 여권이 만료돼 불법체류자 신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중요 참고인을 인도조차 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중요 참고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리스트’에 있는 높으신 분들에게 ‘혐의 없음’을 판단한 경찰은 결과적으로 고인에 대해 ‘거짓을 써갈기고 죽은 사람’이라는 불명예를 덧 씌운 셈이다.

조선일보의 등장, 사라진 고인(故人)

경찰의 수사 중단 발표 이전인 4월 6일,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의 때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질의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고인의 죽음에 대한 여론은 특정 언론사에게로 집중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장자연 문건에 따르면 당시 조선일보 방사장을 술자리에 만들어 모셨고 그 후로 며칠 뒤에 스포츠 조선 방사장이 방문했습니다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보고받으셨어요?(09.4.6 국회 속기록)”라는 국회 대정부 질의 내용이 언론 보도되면서 책임자로서 특정 언론사 사주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이다. 국회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4월 8일 조선일보에게 적극 수사에 협조하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조선일보사 앞에서 진행되었다. 기자회견의 주체는 여성, 언론, 인권 단체였고 기자회견에서는 이종걸 의원의 대정부질문 내용을 인용하며 조선일보의 경찰 수사 협조를 요구하였다.

조선일보는 이에 대한 발빠른 대응을 보였다. 대정부 질의 때 본사와 본사 특정 임원의 이름을 거론

한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해당 내용을 언급한 국회의원, 시민·언론 단체 대표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고, 국회의원 두 명에게 각각 10억 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이종걸 의원은 조선일보사가 자사 인터넷 사이트 <조선닷컴>에 이종걸 의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기사 제목을 고의적으로 노출하였다고, 조선일보에 맞고소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흥미로운 점은 조선일보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인사들 중에 여성단체 관련자들이 전혀 포함되어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종걸 의원의 발언 직후 조선일보 앞에서 기자회견을 주도한 단체가 여성 단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가 명예훼손 검찰 고소에서 여성단체를 제외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조선일보사의 기사를 통해 추측해볼 수 있다. 조선일보는 명예훼손 혐의로 몇몇을 고소한 사실을 5월 17일 기사로 밝히며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은 지난해 촛불시위 당시 조선일보 광고 불매운동을 주도한 세력들이 만든 단체이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좌파 성향의 단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조선일보가 여성단체들을 명예훼손 고소 대상에서 제외했던 것은, 조선일보가 고인의 죽음을 둘러싸고 불거지는 당시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장자연 씨의 죽음은 하나의 비밀일 뿐, 기존에 조선일보의 언론 권력에 도전해왔던 단체들이 이 사건을 통해 또 다시 조선일보를 공격하고 있다는 판단이었다. 작년 촛불 시위 때부터 조선일보 광고 불매운동을 벌여온 단체, 민주언론운동을 내걸고 언론사의 해임 기자들이 만든 단체들은 ‘조선일보의 권력에 계속 판지를 거는’ 불편한 존재들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조선일보가 해당 국회의원을 명예 훼손 고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정부 질의를 했던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인터넷에서 스타가 되었다. 정치 후원금이 쇄도하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의원을 지지하는 카페가 만들어지는 등 '조선일보와의 한 판 승부'를 내건 국회의원에 대한 응원의 여론이 높아졌다. 특히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번 사건은 '친 일파-독립군' 간의 대결로 상징화되었는데, 이종걸 의원이 항일독립운동가인 우당 이회영의 손자이고, <조선>은 같은 일제 강점기에 '친일 부역'을 했다는 점을 들어, '이종걸 의원의 행동도 역시 독립군 이회영 선생의 후손답다'는 격려가 이어졌다.²⁾ 조선일보의 명예훼손 고소는 오히려 이종걸 의원을 '아무도 선불리 건드리지 못 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에게 바른 말을 하는 정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고 장자연씨의 죽음에 대한 수사가 흐지부지 중단된 상황에서, 조선일보가 만들어놓은 '색깔론'의 전선은 더 선명해지고 있다.

그리고 한 여자 연예인의 죽음은 수면 아래로 사라진다. 그녀의 죽음은 하나의 빌미이자 계기일 뿐이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무게는 쉽게 증발하였다.

죽어야 사는 여성 연예인의 인권

고인의 죽음 이후 많은 이들의 애도가 이어졌다. 고인이 남긴 리스트의 '힘없는 여자 배우입니다'라는 문구는 많은 이들에게 인용되며 오랫동안 인구에 회자되었고, 대한민국의 절대 권력자들에 의해 희생된 죽음의 진상은 밝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절대악이라는 특정 권력자들이 이 사건의 책임자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에 비례해서 고인의 죽음은 그만큼 순결한 희생으로 의미화 된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권력자에게 '성상납'한 여성 연예인들에게 그렇게 관대해왔던가? 성과 관련된 여성 연예인들의 가십은 여성 연예인들의 활동을 중단하게 할 만큼 치명적이다. 이미지로 먹고 사는 연예인들에게 대중들의 시선과 평가는 연예인으로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늘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것이고, 특히 여성 연예인들에 대한 평가는 여성에 대한 온갖 가부장적 통념을 무차별적으로 드러낸다. 섹시해야하지만 걸레는 안 되고, 전 남자친구가 협박과 보복성으로 섹스 비디오를 유통하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행실이 바르지 못한' 여자가 된다. 여자 연예인들에게 요구되는 규범은 그야말로 미션 임파서블이다. 예뻐야 하지만 성형하면 욕먹고, 다이어트 성공기는 칭찬받지만 지방흡입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은 방송 출연 중지의 이유가 된다.³⁾ 지적이면 좋지만, 지적 능력은 적당해야 하며 정치적 견해를 밝히면 너무 나대는 여자가 되어 비호감이 되어 결국 '안 팔리게' 된다.

리스트를 작성한 고인이 살아있다면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변했을까? 고인이 용기를 내어 '책임자들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요구했다면? 성적인 것(sexual)이 여성 연예인과 관련되어 언급되면 그 사건의 피/가해자 구도는 증발하고 모두 '사회적 물의'로 해석되어 결국 '사회적 물의'에 대해 책임지는 방식으로 여성 연예인의 활동 중단이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여겨져 왔던 상황을

2) 오마이뉴스, 4.13 <조선>이 고소했더니... 이종걸 후원금 '붓물' // '장자연리스트' 폭로 뒤 500만 원 모여... 팬카페 1000명 돌파

3) 인권 없는 자들의 환상도시 (김민혜정, 인권오름 제 145 호)

떠올려보면, 그 상상의 내용은 암울하다. ‘그게 뭐 대단한 자랑거리라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내놓고 공개하느냐’, ‘룸살롱 출신 아니냐’ ‘받을 거 다 받아 놓고, 이제 와서 공개하는 걸보니 꽃뱀 아니냐’ 라는 인신공격과 더불어 오랫동안 낙인이 지워지지 않을 상황을 상상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일까?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자. 상당수의 신인 여성 연예인들이 자신이 겪은 부당한 계약 조건과 기획사의 횡포를 ‘폭력과 피해’로 사회적으로 문제제기하고 발언한 적이 없고, 따라서 성 접대를 알선·강요한 자들이 사법 처리 되거나 성 접대를 받은 자들이 사법 처리된 경우도 없다. 고인의 죽음을 수사했던 경찰 조사에 참고인으로 진술했던 관련인의 진술을 보면, 강요된 성 접대의 현장에는 장자연 씨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 연예인들도 있었다고 한다. 성 접대의 피해자는 존재하지만, 그녀들의 경험은 ‘사회적 해결’ 가능한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성공한 스타이든, 신인 여배우이든 간에 여자 배우들에게 그들의 배우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가부장적 규범 안에 조신하게 운신해야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성적 접대’나 ‘성적 피해’가 자기 이름과 연루된다면 그것은 성차별이나 성폭력, 성매매가 아니라 성공을 위해 자발적으로 몸을 파는 ‘행실이 바르지 않은 여자’로 쉽게 해석될 것임을 이들은 잘 알고 있다. 자신을 바라보는 수많은 대중들의 눈과 여성 연예인들의 개인 신상 정보와 루머를 국민들의 ‘알권리’로 포장하여 기사화하는 언론들을 접하는 것은 익숙한 일상이기 때문이다. 네티즌, 혹은 시청자라는 중립적 평가자의 이름으로, 혹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수 많은 성차별적, 여성

혐오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시청률이 왕’이라는 불문을 속에서 여성 연예인들에 대한 성차별적 통념은 재생산된다. 그리고 그 통념으로 인해 고립되는 여성 연예인들이 처한 연예계의 부당한 조건과 환경은 비가시화 되며, ‘연예계는 원래 그런 거야’라는 말 속에서 탈 정치화된다. 이런 식의 탈정치화는 여성 연예인들에게 ‘성접대’를 강요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연예계 산업의 구조를 ‘권력과 여색’으로 낭만화 하여 그 구조의 변화를 상상하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일말의 변화 가능성을 찾지 못하는 여성 연예인들은 고립되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고 장자연 씨의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 되, 그것이 특정한 몇몇 ‘권력자’에게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책임이 면피될 수 없음을 짚지 않을 수 없다.

죽음의 증거를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나는 그 수많은 여자 연예인들은 아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자신의 명예와 인권은 죽어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변화의 실마리는 ‘안티-조선’을 넘어선 곳에서

고인의 죽음을 수사하던 경찰에 대한 회의적 여론이 높아지던 3월 중순, 공중파 방송(SBS)에서 ‘여우비(女優悲)-대한민국 여배우로 산다는 것’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되며 잠시 화제가 되었다. 여자 배우 문정희 씨가 MC겸 공동연출을 맡아, 직접 한국의 여자 배우들을 만나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나문희, 윤여정, 채시라, 유호정, 한혜진 등 유명 여자 배우들이 인터뷰에 응해 솔직하게 털어 놓은 내용이 담겼고, 심야시간대에 방송되는 다큐로서는 보기 드물게 높은 시청률

을 보였다. 여기에 등장하는 여자 연예인의 삶과 일에 대한 고백이 그렇게 새로운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설득력을 가졌던 이유는 브라운관에서 접하는 ‘캐릭터’나 ‘이미지’에 가려 드러나지 않았던 개별자로서의 여자 연예인들의 삶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연예 오락 프로그램이나 버라이어티 쇼에서는 이야기하지 못했던 ‘연예계(연예산업)’에 대한 그들의 파악과 평가, 여자 연예인들에 대한 대중들의 모순적인 기대와 그에 대한 자기 생각을 말하는 여성 연예인들을 보면서, 이미지 뒤에 있는 ‘연예계 종사자’들의 삶의 목소리가 들렸다. 캐스팅으로부터 아무도 자유롭지 않은 스타 시스템이라는 노동 조건에서 배우로서의 자부심과 전망을 갖기 위한 구체적인 삶의 목소리와 고민을 들으면서, 저들이 처한 노동 조건이 부당하고 차별적이라면 당연히 피해와 차별로부터 구제받고 권리를 찾아야한다는 자연스러운 결론이 가능한 내용으로 이해되기도 하였다.

5월 22일 열렸던 '장자연씨를 죽음으로 내몬 성착취 침묵의 카르텔 어떻게 깰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하였던 문제갑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이하 한예조) 정책위원장은 한예조의 조합원 중 몇몇 스타들은 역대 수입을 올리지만, 전체 69%는 1년에 1천만원도 벌지 못하며, 이와 같은 경쟁구조 때문에 여성연예인들이 성착취 상황을 폭로하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했다. 하지만 문위원장은 “폭로를 해도 캐스팅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다면 붓물처럼(성착취)피해 경험이 터져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여자 연예인들이 우려하는 캐스팅 불이익을 누가 어떻게 막아줄 수 있을 것인가? 부당한 연

예계의 현실을 폭로하는 여성 연예인들의 정치적 발언을 우리는 어떻게 이끌어 낼 수 있을까?

첫째, 스타시스템의 관점에서 본다면 방송은 스타가 대중들에게 노출되고 수익을 창출하는 유통의 역할을 한다. 제작사, 방송사, PD, 감독들에게 연예계의 성차별적 관행을 끊어달라고 부탁한다면 그것이 가능할까? 사실 방송이나 영화라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제작자들의 작품들에 등장하는 여성 배우들의 역할은 끔찍할 정도로 ‘가부장적 판타지’를 반영한다. 어리고 예쁘고 적당히 섹시한 여배우들은 여자 주인공이 되지만, 나이가 들어 갈수록 여자 배우들은 자기 가족 이기주의의 최첨병 역할을 하는 못된 시어머니 역할만이 배정된다. 여자 주인공 옆에 등장하는 팼쥐파탈은 순진한 남자를 성적으로 유혹하여 정상 가족에 균열을 내지만 결국 파멸하거나 눈물의 회개를 한다. 어머니와 아내, 가부장적 가족을 유지하는 시어머니, 그 가족의 갈등을 제공하는 팼쥐파탈이라는 구도를 반복하는 ‘여성 연예인’ 캐릭터들 속에서 여자 연예인들이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역할을 연기하며 자신의 연기 색깔을 키워가기는 것은 하늘에서 별따기보다 어렵다. 제작자들이 충실히 구현한 ‘가부장적 세계’를 가상으로 채워가는 여자 연예인들의 필모그래피는 따라서 단선적이 되기 쉽다. 한편, 제작자들은 종종 외압이 작동함을 토로하며 여자 배우 캐스팅에서 ‘연기력’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평가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탓한다.

둘째, 그렇다면 스타 산업의 생산자에 해당하는 기획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한예조는 현재 연예인과 연계 기획사와의 계약을 위한 표준약관 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한 상태이다. 기획사가 연예인들과 공정 계약을 맺고, 기획사는 소속 연예

인들을 ‘띄우기’ 위해 외부 권력에 ‘성상납’을 시키기보다, 실력을 키우도록 한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하지만 수많은 기획사가 난립하고, (매해 대중문화 관련 학과와 각종 교육기관, 기획사에서 배출되는 인원까지 포함한다면) 스타가 되기 위한 경쟁률이 크게 3만대 1 수준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현재의 이러한 부당한 관행이 기획사들의 자성적 노력으로 사라질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셋째, 소비자인 시청자들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청자들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고, 시청자들의 역할을 어떻게 정치적 힘으로 결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여자 연예인들을 성적으로 등급화 하여 연예계에서 퇴출시키는 분위기가 온존한다면 여자 연예인들이 자신의 부당한 경험을 사회적으로 드러내어 해결하는 일은 요원할 뿐이다. 여자 연예인들이 실력으로 평가받기를 바라고, 부당한 노동 조건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시청자들의 목소리가 모아진다면 할 수 있는 일들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특정 방송사에서 ‘성적 물의를 일으킨’ 여배우를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킨다면 그 방송사에 항의를 하고 실력행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며, 여성 인물의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는 제작자와 감독, 피디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모아질 수도 있다. 자연히 그러한 제작자들과 함께 작업하며 자신의 경력을 쌓는 여자 연예인들도

생길 것이다. 성차별적인 통념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대중들 뿐만 아니라 배우로서의 자신을 기대하고 응원하는 대중들이 있다면 여성 연예인들이 자신의 캐스팅 불이익을 고려하여 정치적 발언을 아끼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 연예인들을 남성 판타지 각본 안에서 일회적으로/반복적으로 등장시키는 제작자들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더불어 그런 제작자들을 낙후시키는 시청자들이 드러난다면 그 과정은 새로운 시각으로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자들의 더 많은 등장을 예비하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고인의 죽음을 계기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다시는 이런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스타가 되기 위해 살인적인 경쟁률을 통과해야 하는 연예계 스타 시스템, 난립하는 연예 기획사, 방송 캐스팅에서 외압을 행사해왔던 대한민국의 권력자들, 여성 연예인들에게 덧씌워지는 성차별적 통념들. 이것들은 모두 신인 여자 배우를 계속 ‘취약하게’ 만들어가는 이 조건들이 다 해결이 어려워 보인다고 하여도 포기할 수 없다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변화의 시작을 위한 싸움의 전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하고 움직여야 할 때이다. 더 이상 ‘죽어야 사는 여성 연예인’의 인권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말이다.

동반자살과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젠더적 접근

김 영 택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들어가며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연보를 살펴보면 2007년 현재 자살 사망자는 12,174명에 이르는 반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7,604명이다. 즉, 하루 평균 33.3명이 자살로 사망하며 시간당 1.4명이 자살로 사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살 사고 중에서 동반자살이 본격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동반자살이 급증하게 된 2003년 이후였다. 동반자살의 주요 원인은 1997년 말부터 시작한 경제상황의 악화가 사회전반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하루하루 생활하기가 힘들어 부모가 자녀들을 죽이고 부모 자신들도 같이 자살하는 사건은 생생히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다. 그리고 현재 경제상황이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신문에서도 이러한 일이 적지 않게 보이고 있다. 이러한 동반 자살의 증가는 자살증가율에 기여하였고 급기야 2004년에는 10만 명당 23.7명이 자살함으로써 한국은 OECD 국가 중 1위의 자살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2007년에도 그 순위는 바뀌지 않고 있다.

동반자살 유형 중 요즘 사회적 관심사를 일으킨 것은 자살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한 동반자살이다. 인터넷 자살 사이트에 의해 매개된 자살은 자살자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함께 컴퓨터 매개 의사소통과 관련된 여러 변인들과 함께 연관되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인터넷의 특성을 살펴보면, 인터넷은 누구든 손쉽게 이용하는 의사소통 매체이자 생활의 일부분으로 인터넷에서의 상호작용은 빠르고 강력하다. 메시지 전송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자살 사이트가 유행하게 되었고 자살시도를 위한 만남 또한 손쉽게 이루어져 결국 단시간 내에 많은 피해자가 속

출하였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굳이 특정 개인과 메시지를 교류하지 않더라도 어떤 부분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진 개인이 인터넷을 접속하여 이용하게 되면 그렇지 않았을 경우와 다른 내면의 심리적 과정을 거치게 될 수 있다. 특히 익명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금기시된 내용에 대한 표현도 더욱 자유로울 수 있다. 인터넷은 이처럼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과 개인의 내면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지만 그 부정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과소평가된 경향이 있다(문성원, 2002).

인터넷 동반자살은 인터넷 자살 사이트를 이용하여 자살바이러스(Suicide Virus)에 감염된 것처럼 귀중한 우리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같이 죽음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 중에는 10대 후반의 여자 청소년도 포함되면서 자살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가 최고조에 다다랐다. 저자는 이러한 동반자살을 젠더적 입장에서 논하고자 한다. 인터넷동반 자살 사이트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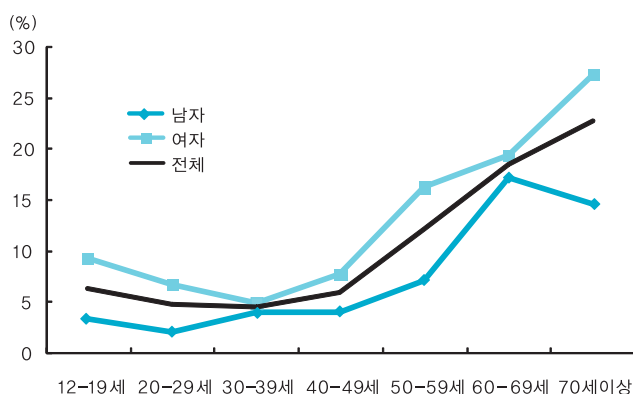
여성이 남성보다 자살 시도 위험에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으며 그 이유가 여성자살 특이성에 기인한다는 것이 저자의 견해이다. 따라서 본 글은 여성자살의 특이성이 인터넷 동반 자살에 왜 연계될 수 있는가를 논하고자 한다.

여성자살의 특이성

여성의 자살 특이성은 다음의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로, 여성은 남성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높고 여성은 남성보다 자살 생각이나 자살 충동을 더 많이 경험한다(자살예방 5개년 종합대책, 2005).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울증 증세의 경우 성인 여성이 성인남성보다 거의 두 배가 높다.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의 우울증은 높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우울증 증세는 더욱 커지고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연령별 · 성별 우울증 발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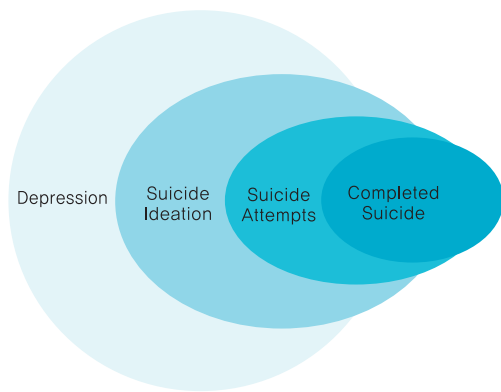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5), 국민건강영양조사

자살 원인은 개인적 및 사회적 수준에서 복잡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1-2개의 주요원인을 실증적으

로 검증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 자살 관련 특성별 우울증 수준을 비교해 본 결과 우울증

이 심할수록 자살 생각 혹은 자살 충동이 많아진다고 보고한 바 있다(이지전, 2006). 자살 생각이나 충동이 반드시 자살시도와 연계되지는 않지만, 우울증과 자살 생각 및 자살 충동이 실제 자살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고려하면 우울증 증세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자살 원인으로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그림 2 참조).

〈그림 2〉 우울증-자살 생각-자살 시도-자살 관련 모형



두 번째로, 20대에서는 여성 자살률이 남성보다 높고 10-19세 사이 여성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점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007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세-24세 연령대에서 여성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21.6명인 반면 남성은 15.2명이고, 25세-29세 연령대에서도 여성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24.4명인 반면 남성은 22.3명이다. 또한 남녀 연령별 자살의 사망원인 순위를 살펴보면 10-19세 연령대에서 여성의 경우 자살이 사망원인 1위인 반면에 남성에 있어 자살은 사망원인 2위이다. 20-29세 사이에서도 자살은 여성의 사망 원인 1위이며 남성 또한 자살이 사망원인 1순위로 나타났다. 30세-39세 사이에서는 여성의 경우 자살이 사망원인 2순위이며 남성은 자살이 사망원인 1순위이다(표 1 참조).

남녀 연령별 총 사망자 대비 자살자 비율을 살펴보면 10-14세부터 45-49세까지 여성의 자살자 비율

〈표 1〉 남녀 연령별 자살의 사망원인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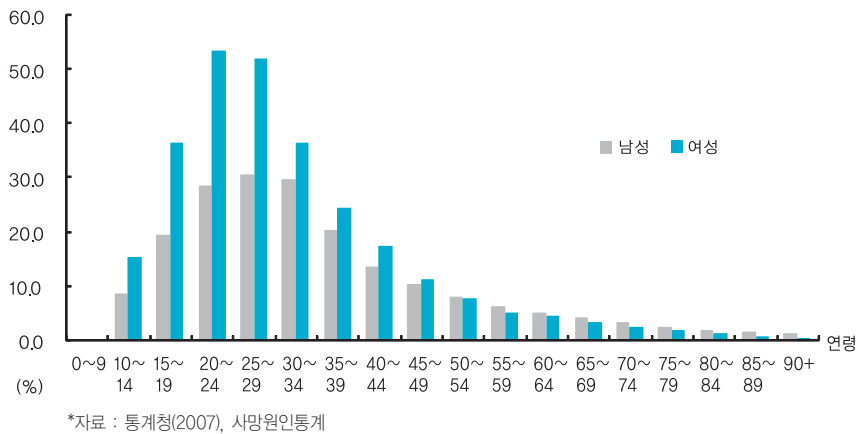
순 위	1위		2위		3위		순 위	여 성	남 성	전 체
	사망원인	사망률	사망원인	사망률	사망원인	사망률				
1-9세	운수사고	3.7	악성신행물(암)	3.6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1.3	1-9세	-	-	-
10-19세	운수사고	5.4	고의적 자해(자살)	4.6	악성신행물(암)	3.6	10-19세	1순위	2순위	2순위
20-29세	고의적 자해(자살)	21.0	운수사고	10.4	악성신행물(암)	5.0	20-29세	1순위	1순위	1순위
30-39세	고의적 자해(자살)	22.4	악성신행물(암)	18.7	운수사고	9.3	30-39세	2순위	1순위	1순위
40-49세	악성신행물(암)	64.0	고의적 자해(자살)	26.3	간질환	22.2	40-49세	2순위	3순위	2순위
50-59세	악성신행물(암)	179.8	뇌혈관 질환	36.8	간질환	35.0	50-59세	3순위	5순위	5순위
60-69세	악성신행물(암)	461.7	뇌혈관 질환	129.3	심장질환	90.0	60-69세	5순위	5순위	5순위
70-79세	악성신행물(암)	981.5	뇌혈관 질환	482.5	심장질환	291.7	70-79세	7순위	6순위	6순위
80세 이상	악성신행물(암)	1483.3	뇌혈관 질환	1405.5	심장질환	1088.2	80세 이상	10순위	8순위	10순위

*자료 : 통계청(2007), 사망원인통계

이 남성보다 높다. 특히 20세-24세와 25세-29세 연령대에서는 여성의 사망자 대비 자살자 비율이 무려 50%에 이르지만, 남성은 30%에 불과하다. 이는

젊은 연령층인 10대와 20대 사이에서 여성이 자살로 사망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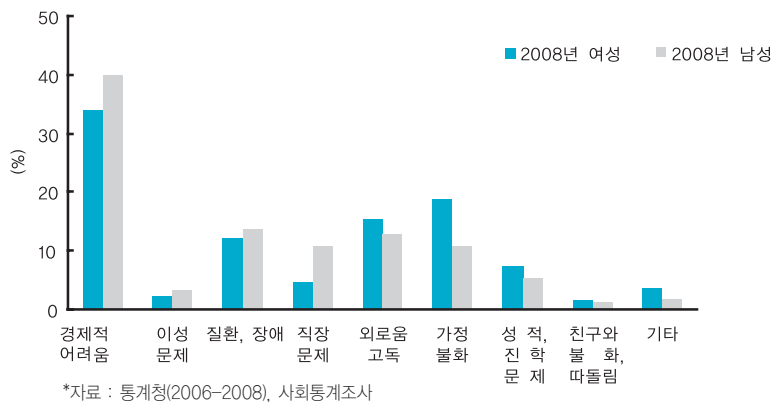
〈그림 3〉 남녀 연령별 총 사망자 대비 자살자 비율



세 번째로, 남녀별 자살충동 원인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외로움/고독, 가정불화, 성적 진학문제 기타 원인들이다. 특히 가정불화는 여성의 자살충동 원인 중 경제적 어

려움 다음으로 높으며 남성과는 약 8% 차이로 높다. 이는 자살 충동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선택적 문항을 주어 얻은 답을 통해 얻은 것으로 여성 자살특이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림 4〉 남녀별 자살충동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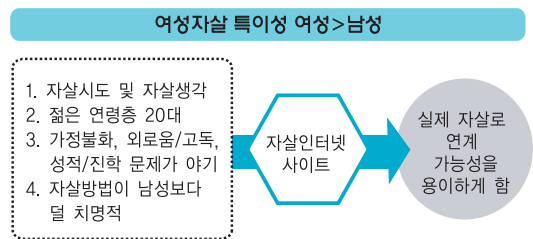
네 번째로, 자살방법 면에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존재한다. 여성은 남성보다 덜 치명적인 방법을 쓰며 남성은 비교적 치명적인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최근 2007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살충제 자의의 중독 및 노출인 경우 여성은 10만 명당 3.9명인 반면에 남성은 7.9명이다. 목매, 압박, 질식인 경우 여성은 8.9명인 반면에 남성은 15.8명이며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경우에는 여성이 3.3명인 반면에 남성은 3.6명이다. 나머지 기타인 경우에는 여성이 2명이며 남성은 2.2명이다. 외국 연구 조사에 따르면 목매달기, 뛰어내리기 등 치명적인 방법을 사용한 경우가 여성은 43%에 불과한 반면 남성은 75%를 차지했다(Rich CL, et al 1988).

여성자살의 특이성은 자살 인터넷 사이트를 매개체로 동반자살과 연계될 수 있음

불법 자살 인터넷 사이트는 자살 고위험 집단 여성들에게 실제 자살 행위를 유도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가설이다. 여성 자살의 특이성 중 여성의 높은 우울증 발병률은 자살 생각이나 자살 시도에 영향을 주어 실제 자살로 이끌 수 있다. 그리고 20대의 연령층 및 가정불화나 외로움과 고독을 경험한 여성, 성적/진학에 문제점을 가진 여성들은 자살 생각이나 자살 시도를 할 수 있는 집단(자살고위험군)으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덜 치명적인 자살방법을 택하는 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자살에 대한 두려움이 많으며 실제 자살 행위에 있어서 어려움이 크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쉬운 자살 방법과 시기 및 장소 등을 가르쳐 주며 자

살하고 싶은 동반자를 찾아주는 불법 인터넷 자살 사이트는 자살고위험 집단에 속한 여성들을 실제 자살 행위로 이끌 수 있다는 가설이다.

〈그림 5〉 여성자살의 특이성과 자살시도 관계의 자살인터넷 사이트 매개효과



실제 이와 관련한 원자료가 부재하여 그러한 가설에 대한 검증은 할 수 없었다. 다만 기존 자살연구에서는 신문기사 분석이 많이 활용된 측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도 동반자살이 많이 발생한 2008년 4월 1일부터 4월 31일까지 신문기사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문 분석의 결과 인터넷 자살사이트를 매개로 하여 일어난 동반자살 비율은 4월 총 자살사건 대상자 63명 중 25명(40%)이다. 자살 장소와 관련해 인터넷 동반 자살이 가장 많이 시도된 장소는 강원도였다. 즉, 동반자살자 25명 중 21명(84%)이 강원도에서 동반자살을 시도하였다. 또한 자살방법 면에서의 특징은 민박집, 펜션, 자동차 안에서 집단 연탄가스 질식사 방법이 제일 높았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인터넷을 매개로 하여 일어난 동반자살자들의 성별 비율이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자살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4월 한달 동안 인터넷 동반 자살 미수자 및 자살자 중 남성은 13명(52.0%)이며 여성은 12명(48%)이다. 이는 인터넷 동반 자살자의 경우 남성과 여성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 이슈브리프

사실은 인터넷으로 인한 동반 자살자 중 남성의 평균 연령은 32.6세이며 여성은 22.7세라는 점이다. 이는 여성자살자의 특이성 중 젊은 연령층의 여성이 자살 고위험 집단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과 연관될 수 있다.

나가며

정부가 2003년부터 2007년 6월까지 실시한 자살 관련 사이트 단속 실적을 살펴보면 구속이 18건, 불구속 10건에 달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살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원천 봉쇄하려는 정부의 노력만 가지고는 인터넷 자살을 예방하지 못한다. 동반자살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살 위험 집단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확대하고 사회 복지적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의 제2차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교육과 홍보사업은 존재하고 있지만 성별 자살 특이성에 관한 자살 예방정책은 아직 보이고 있지 않다. 앞으로는 자살 고위험 집단에 대한 특성 연구를 통해 성별 차이를 고려하여 자살 위험이 높은 집단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체계적이며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사회 구성원 각자가 그들의 주변의 이웃과 동료의 자살 시도 징후에 관하여 더욱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자살 고위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패쇄적인 사이버 공간을 찾아 부정적인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기 보다는 현실에서 긍정적인 사회적 도움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참 · 고 · 문 · 헌

- 김동식(200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연구실 콜로키움 발표 자료
- 문성원(2002), "인터넷 자살 사이트에 의한 매개된 자살: 사례 중심의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Vol 14, 461-485
- 보건복지부(2005), 국민건강영양조사
- 이지전(2006), 노인자살 예측모형 개발 및 예방대책연구, 정책보고서
- 자살예방 5개년 종합대책(2005), 보건복지부 보고서
- 통계청(2007), 사망원인통계연보
- 통계청(2006-2008), 사회통계조사
- Rich GL, et al(1988), Some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who commit suicide, Am J Psychiatry, 718-722

다문화 사회에서의 학교 교육

오 은 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I. 들어가며

최근 외국인의 유입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단일 민족임을 자랑하며 전통 문화를 유지하고 계승 발전시켜 왔던 우리 사회와 학교가 다문화 교육이라는 새로운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달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의 부족, 농어촌의 국제결혼 증가 등에 기인한 것이다. 그 결과, 2006년 국내 체류 외국인인 910,149명으로 인구대비 국내 체류 외국인 비율 1.88%에 이르며, 이와 같은 현상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런가 하면, 2006년 국제결혼은 39,690건으로 국내 전체 결혼의 11.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6년 말 현재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는 93,786명으로, 이전 해에 비해 25%의 증가를 보였다(법무부, 2007).

특히,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가정의 자녀수와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수는 각각 1,209명과 13,445명에 달하며(교육인적자원부, 2007),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는 해가 거듭 할수록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학령기인 19세까지의 새터민 입국현황도 2007년 5월 기준으로 156명에 이른다.

국제결혼, 외국인 근로자, 새터민 가정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과 더불어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는 그들 가정의 자녀 교육이다. 대다수의 다문화 가정 학생은 한국 교육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외국인 근로자 자녀 10명 중 3명이 집단 따돌림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외국인이라서(46.7%)', '특별한 이유 없이(40.4%)',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33.3%)' 등이다(김정원, 2006: 99).

이와 관련하여 대다수의 연구는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학습 결손을 다문화 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실제 많은 다문화 가정 학생들은 국어, 사회, 역사 과목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수학, 과학 등은 비교적 덜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과는 학업성취, 교우 관계 등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새터민 학생도 비슷하다. 그들 역시 한국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생활 문화가 매우 낯설기 때문이다.

II.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실 수업 지원

1. 다문화 교육의 개념과 교육과정적 접근

다문화 교육(multicultural education)은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과 이해를 위한 일련의 교육적 과정을 통해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사회적 차별을 해결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 전략으로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다(오은순 외, 2007). 이와 같은 개념적 정의는 문화적 다원주의 입장에서 다문화 교육을 바라본 베넷(Bennett, 1995: 13) 등의 주장을 근거로 한다. 즉, 그는 다문화 교육을 민주주의의 가치와 믿음에 기초한 교실 수업 방법으로 접근하고, 다양한 문화 세계와 상호 독립된 세계에서 문화적 다원주의를 조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 때 다문화 교육은 평등주의 운동, 다양한 교육과정 접근, 다문화주의 실현 과정, 편견과 차별에 대한 저항을 포함하고 있다.

다문화 교육을 좀 더 실천적으로 정의한 술레만(Suleiman, 2004: 13-17)에 의하면 다문화 교육은

학생들의 학문적, 사회적, 언어적 욕구와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다학문적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때,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그들 자신의 배경과 우리 사회의 다양한 집단의 문화적 배경에 대해 깊은 이해를 도모하게 해야 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장인실(2006: 29)은 다문화 교육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즉, 인종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집단에 속해 있는 서로 다른 사람들의 상호이해와 평등 관계를 중시하고 민족, 사회적 지위, 성별, 종교, 이념 등과 같이 서로 다른 집단의 문화를 동등하게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 학생들이 자신이 속해 있지 않은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다양한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지식, 태도, 가치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다문화 교육이다.

이와 같이 다문화 교육의 정의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무엇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초기 다문화 교육의 관점은 배척주의(nativism), 동화주의(assimilation), 용광로주의(melting pot) 등 소수집단이 자신의 전통을 포기하고 주류 사회나 문화에 흡수되거나 혼합되기를 기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관점에서 본 다문화 교육은 공존하는 문화 집단이 상호 존중하고 평등한 사회적 조건을 형성하며, 사회 전체 속에서 조화롭게 공존할 것을 요구할 때 소수민족 집단이 순응하는 한, 자신의 문화적 방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인종주의와 불의를 지적하고 적극 대응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

다문화 주의 관점에서 다문화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교육은 물론, 다문화 가

정 자녀들이 일반 학생들과 많은 시간 동안 생활하게 되는 학교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이에 더하여 사회교육 또한 나머지 부분을 충실히 수행할 때 모든 교육이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함으로써 다문화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에서의 다문화 교육을 강조했던 베넷(Bennett, 1995: 14)은 소수민족 학생이나 주류 학생 모두가 문화의 차이와 역사, 동시대의 인종 집단이나 국가의 공헌 등에 대해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적 접근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전통적 교육과정에 다인종적·범국가적 관점을 통합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위와 같은 제안들은 코엘료(Coelho, 1998: 54-270)가 제시한 다문화 학교에서의 교실 수업 방안들에 매우 포괄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 있다. 코엘료는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인한 사회의 다양성과 이에 따른 다문화 가정의 적응을 매우 상세히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을 위한 학교 운영과 교실의 교실 수업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보여주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일반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학교교육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교육(inclusive school)과 다문화 가정 자녀만의 적응을 위한 지원 서비스로서의 적응 프로그램은 물론, 일반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 중심의 반인종주의 교육(antiracist approach to education)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이 둘을 종합적으로 실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어 다문화 교육을 위한 학교교육의 체계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뱅크스(Banks, 2004: 4-6)도 초기의 다문화 교육은 협의의 교육과정 개혁에 초점이 맞추어졌음을

지적하면서 다문화 교육의 범위를 확대해야함을 역설하고 다문화 교육의 차원을 내용 통합(content integration), 공평한 교수법(equity pedagogy), 지식의 구성 과정(knowledge construction process), 선입견 해소(prejudice reduction), 학교 문화와 사회 구조에 능력 부여하기(empowering school culture and social structure)의 다섯 가지로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다문화 교육의 차원이 실제적인 수업에서 실현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요소로서 그는 다음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즉, 교육과정(curriculum), 교수 자료(teaching materials), 교실 수업방법(teaching and learning style), 교사과 행정가의 태도(attitudes)·인식(perceptions)·행위(behaviors), 학교목표(aims)·규준(norms)·문화(culture)가 그것이다.

이후, 그는 다시 좀 더 확대된 개념으로 다문화 교육의 장이 되는 학교를 하나의 사회 체제로 설정하고, 좀 더 세분화된 다문화 교육의 실천 방향을 안내하였다. 한 학교 내에서의 다문화 교육은 학교 정책 및 정치, 학교 문화와 잠재적 교육과정, 학습 양식, 학교의 언어와 방언, 지역사회 참여와 기여, 상담 프로그램, 평가와 시험 과정, 교실 수업 자료, 공식적인 교육과정과 교과과정, 교수 양식과 전략, 교직원의 태도·인식·신념·행동 등의 11가지 요소에 변화가 일어날 때 다문화 교육은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본 것이다(Banks, 2005: 24).

그는 전체적인 학교환경은 많은 변인과 요소들로 구성된 하나의 체제임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즉, 학교 문화, 학교 정책 및 정치, 공식적인 교육과정과 교과과정 등의 요소들을 예로 들면서, 이 요인들 중 몇

몇은 학교 개혁 초반에 핵심 내용이 될 수 있으나, 결국 효과적인 다문화 교육 환경이 조성되고 유지되려면 각각의 요소들이 모두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의 상황은 이와는 조금 다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학교 외의 지원과 교육이 학교 교육에 앞서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 역시 교육정책 보다 앞서 입안되어 추진되고 있다. 다문화 가정교육 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 연구를 수행한 조영달 외(2006b: 175-276)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지원 정책과 실행이 이미 정부 각 부처와 시·도 교육청, 사회의 민간단체들에 의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대학과 관련 연구 기관들의 다문화 교육 관련 연구 또한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수년 내에 이들을 위한 학교 체제 외의 지원 환경은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학교 체제 밖의 환경은 활발히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다문화 교육은 아직 준비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학교 수업에서의 다문화 교육이 학교 밖의 각종 지원과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가 중심이 되어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해야함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다.

2.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실 수업 지원 체제

다문화 교육의 교실 수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지원 체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업이 효과적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업 자체뿐만 아니라 수업을 준비하고 평가하는 전체 과정 나아가 그 밖의 외적 지원 요인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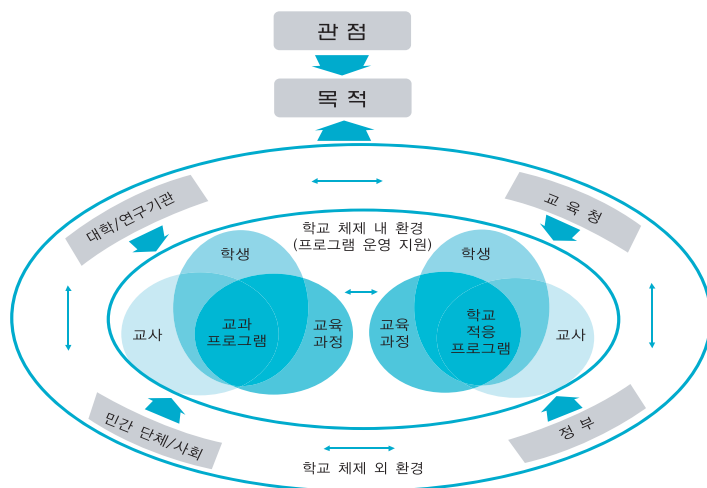
다(Frazee & Rudnitski, 1995: 11).

즉, 교실 수업은 매우 많은 요인들이 복잡하게 얹혀 결정된다. 기본적으로는 교실 수업을 구성하는 요인은 교육과정, 학생, 교사로 대별되며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강조하여 설명하고자 하느냐에 따라 좀더 구체화되고 세분화된다. 이와 같은 내용은 교육을 교실 수업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통합적인 모형으로 설명하고자 했던 프레이지와 러드니스키(Frazee & Rudnitski, 1995)의 제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물론, 각각의 요인 속에 포함된 요소들과 요인과 요인간의 관계 등은 매우 복잡하게 드러나 있지만, 이를 간명하게 재조명해 보면 결국 교실 수업은 교육과정, 학생, 교사의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설명되며 각 요인의 나머지 요소들도 수업과 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교실 수업의 3가지 기본 요인 밖에는 학교 사회와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학교 밖의 사회 환경이 있다.

이와 같은 프레이지와 러드니스키(1995)의 모형은 다양한 목적의 교육적 접근의 체계화를 위해 매우 의미 있는 틀을 제공해 주고 있다. 다문화 교육의 교실 수업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모색하고자 하는 본 연구를 위해 조영달 외(2006b: 11-77), Banks, J.(2004: 4-6, 2005: 24), Bennett(1995: 342), Coelho(1998: 54-270)의 제안을 프레이지와 러드니스키(1995)의 모형에 따라 (그림 1)과 같이 재구조화해 본다.

이와 같이 구조화된 위의 '다문화 교육의 교실 수업 지원 체제 개념적 모형'은 각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 주고 있지는 않다. 즉, 모든 변인 각각은 전체 속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문화 교육의 교실 수업 지원 체제를 개념적으로

〈그림 1〉 다문화 교육의 교실 수업 지원 체제 개념적 모형



설명하자면 한 사회가 다문화 교육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관점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교실 수업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을 설정한 후 다문화 교육의 교실 수업을 실천적으로 설계한 교실 수업 프로그램 두 가지를 개발·운영하게 된다. 프로그램의 하나는 다문화 가정 학생 및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 프로그램이 있으며, 다른 하나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만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다. 공교육 체제 내에서는 이 두 유형의 교실 수업 프로그램이 하나의 학교 체제 내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으며, 운영 주체인 학교는 프로그램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밖의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III.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과 교육의 방향

사회 구성주의자 비고츠키(Vygotsky, 1978)에 따르면, 아동 개개인의 발달적 변화는 사회와 문화

에 기초한다(이성은, 2002, 68). 즉, 아동은 문화를 매개로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1세 이전에 자신과 타인을 구별하지 못했던 상태로부터 점차 자기 자신과 분리된 타인의 존재를 이해하게 되고 학령기가 되면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각자의 특성과 정체성, 삶의 역사와 미래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이와 같이 아동의 사회인지는 그들의 삶의 세계가 장 가까이에서 직접 상호작용이 가능한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면서 미래와 같은 추상적인 세계로까지 확장하여 발달하게 된다. 다문화 교육학자인 뱅크스(Banks, 1988)는 일찍이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의 차이를 포함하는 민족성 태도 발달을 설명하였다. 장영희(1997)는 뱅크스의 민족성 태도 발달을 근거로 하고, 인종 및 민족성 발달과 관련된 연구들을 종합하여 6단계의 문화 발달이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즉, 첫째, 문화적·심리적 거부 단계: 자신의 인종에 대한 부

정적인 태도나 믿음을 내면화하는 시기, 둘째, 문화적 고립기: 인종적 배타주의의 단계, 셋째, 문화적 정체감의 명료화 단계: 자신의 인종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 넷째, 이중문화 단계: 둘 이상의 문화에서 요구하는 가치, 태도, 지식, 기술 습득, 다섯째, 다문화 단계: 다문화주의와 반영적 국가관의 형성 단계, 여섯째, 세계화의 단계: 긍정적인 세계적 동질성 습득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가 지속되면서 구성원들은 새로운 미래 사회를 창조해 나아가야 함을 제안하였다.

즉, 한 개인 내부에서의 문화에 대한 태도 발달은 한 개인이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혼란과 갈등을 겪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자국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고, 사회에 대한 개념이 확대되면서 문화에 대한 태도도 다문화와 세계 문화, 나아가 미래 사회 문화로 넓혀 가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귀우(1999)는 이러한 입장의 다문화 교육을 자유주의적 혹은 다원주의적 다문화주의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¹⁾ 이와는 달리, 비판적 다문화주의(critical multiculturalism)는 문화에 대한 정체성 형성과 문화적 다양성 이해와 존중을 길러주는 것만으로 불충분하다고 믿는다(Banks, 2004, 240, 재인용).

비판적 다문화주의는 평등과 정의의 관계를 억누르면서 억압의 관계를 만들어 내는 사회구조의 변화를 도모하여, 다문화적 상황에 바람직하게 대응하고자 한다. 맥라렌(McLaren, 1993) 등의 비판적 다문화주의 주창자들은 다문화 사회에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더불어 사는 것만으로는 평등과 정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가정한다(Banks, 2004, 240, 재인용). 따라서 비판적 다문화주의 관점에서의 다문화 교육은 단순히 차이를 인정하거나 격려해 주고 편견을 줄이는 수준이 아니라, 인종주의와 불의를 지적하고 적극 대응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러한 맥락에서 슬리터(Sleeter, 2008)는 한국의 다문화 교육과정을 위한 그의 제안에서 다양성과 공평·정의의 세로축과 국내적 입장(Nation-Bound Perspective)과 국제적 입장(Global Perspective)의 가로축을 격자로 하는 4개 영역의 교육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내적 다양성과 국제(지구)적 다양성, 국내적 공평·정의와 국제적 공평·정의로 구분하여 각각의 교육과정이 가정하는 바와 교수 전략, 그리고 관련 집단의 특성에 대한 답론을 펼쳤다. 이와 같이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실 수업의 동향을 살펴보면, 어느 한 관점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경우는 있을지라도 온전히 한 관점을 추구하는 실천적 방안을 제안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즉, 다문화 교육을 위한 대개의 교실 수업 프로그램들은 기술기에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대부분 이 둘의 관점을 절충한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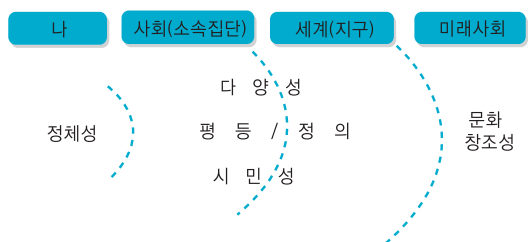
예컨대, 박선영(2005)은 문화적인 다양성, 공동체 의식, 정체성, 민주적인 시민의 자질과 능력, 새로운 문화를 재창조할 수 있는 창의력 등을 다문화 교육의 중요한 가치 내지는 목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선행 연구인 오은순 외(2007)의 연구에서도 다문화 가정 학생의 적응, 문화적 상대성과 다양성, 문화적 편견 해소, 평등 사회 도모, 미래 사회를 위한 새 문화 창조를 다문화 교육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

1) 이귀우(1999)는 다문화주의를 다문화적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들을 가리키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규정하고, 이를 보수적 다문화주의,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다원주의적 다문화주의, 본질적 다문화주의, 비판적 다문화주의로 구분하였다. 이 때 비판적 다문화주의는 보수적·자유주의적·다원주의적·본질적 다문화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가장 바람직한 최선의 다문화주의를 정의하기 위하여 유형화하려는 과정에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설명하였다.

적으로 상정한 바 있다. 그 밖에, 조오(Zaw, 1996)는 차별, 부정의와 같은 사회악에 대한 대항을, 베넷(Bennett, 2007)은 문화 의식, 복합적인 역사적 관점, 간문화적 능력, 사회적 행동 기술, 인종·성 등의 편견과 차별 극복, 우주적·지구적으로 역동적인 상태에 대한 의식 등을 다문화 교육의 중요한 가치로 제안하였다. 아동들을 위한 다문화 교육에 초점을 맞춰 목적을 제시한 램시(Ramsey, 2004, 10-12)는 좀 더 구체적인 교실 수업의 목적을 포함시키고 있다. 즉, 정체성, 연대감, 사고력, 문제해결력, 학문적 기능 발달과 희망적인 미래 창조 등이 그것이다. 최근 뱅크스(Banks, 2008)도 다문화 사회 적응, 문화적·민족적·언어적 다양성, 소수민족집단의 고통과 차별 감소, 자문화 이해와 존중, 자신이 속한 크고 작은 문화 공동체(지역 문화, 국가적 시민 공동체)와 전지구적 공동체 생활을 위한 기초 능력 등을 다문화 교육의 주요한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문화 교육의 중요한 가치(value) 혹은 궁극적 목적(goal)들은 위의 연구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그 수준과 범위에 있어 매우 큰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상의 연구들이 제안하고 있는 다양한 수준의 가치들은 앞서 논의한 아동의 사회 인지 발달과 문화에 대한 태도 발달, 다문화 교육에 대한 비판적 다문화주의 관점, 다문화 교육 관련 선행 연구 등을 고려해 볼 때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즉, 학생 자신의 정체성, 학생이 속한 크고 작은 사회에서의 다양성, 평등, 정의, 세계 시민성, 그리고 새로운 미래 사회를 위한 창조성이 그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가치들을 우리나라 다문화 교육의 교과 교실 수업이 추구해야 할 방향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그림 2〉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과 교육의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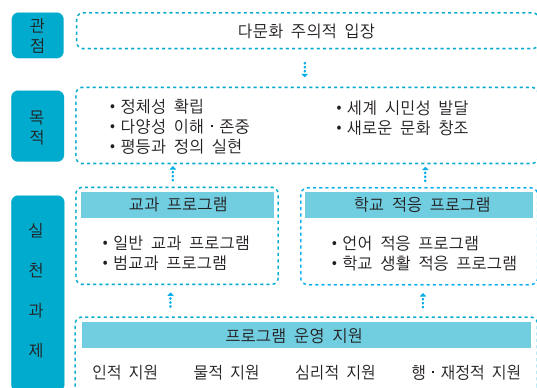
IV. 한국의 다문화 교육을 위한 실천 과제

1. 기본 방향과 실천 과제

지금까지 다문화 교육 관련 국내외 이론 및 연구를 탐색함으로써,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실 수업 지원의 체제와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우리나라 다문화 교육을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실천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의 관점으로는 다문화주의적 입장을 취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관점에 근거한 정체성 확립, 다양성 이해·존중, 평등과 정의 실현, 세계 시민성 발달, 새로운 문화 창조의 다섯 가지 목적을 설정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의 큰 범주의 실천 과제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우선 일반 교과와 범 교과 프로그램으로 대별할 수 있는 교과 프로그램과, 언어 적응과 학교생활 적응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는 학교 적응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적, 물적, 심리적,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림 3〉 기본 방향 및 실천 과제



학교에서의 다문화 교육은 갑자기 다문화 가정 학생을 맞이하게 된 어느 개별 학교나 이에 사명감을 느낀 학교 행정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실 수업 지원과 관련된 학교, 정부, 교육청, 연구기관 및 대학, 민간/사회단체는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개체는 개체대로 서로 협력할 부분은 적극 협력하여 다문화 교육의 효율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V. 나가며

지금까지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실 수업 지원에 기초가 되는 다문화 교육의 개념과 교육적 접근을 살펴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체제를 모형화하여 제시하였다. 모형은 우리나라 학교에서의 다문화 교육이 나아갈 방향과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교과 프로그램과 적응 프로그램을 개발 ·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학교 체제 내의 환경에서 협력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후의 내용은 이러한 모형을 근

거로, 다문화 사회에서 학교 교육의 핵심이 되는 교과 교육이 추구해야할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상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 다문화 교육의 기본 방향으로서 다문화주의적 관점을 지향해야 할 것과 정체성, 다양성, 평등과 정의, 세계 시민성, 새로운 문화 창조를 국가적 목적으로 하여 교과 프로그램과 적응 프로그램을 개발 ·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한 각종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 협력 체제 구축 ·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기인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도 선형적인 국내의 경험과 체계적인 이론을 가지고 출발하게 되었다. 또한 아직은 다문화 교육의 문제점과 극도의 한계점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다문화 교육의 상황은 어떤 측면에서는 향후 다문화 교육의 전망을 밝게 해준다. 다만, 이러한 전망은 현재 다문화 교육에 관여하고 있는 개인 및 기관이 얼마나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여 대비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직시할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다문화 교육이 방향성을 잃지 않고 교육 현장에 천착하기 위해 다각적인 차원에서 각종 지원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국가 수준 혹은 교육청 수준에서 교과 및 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급 학교에 보급함으로써 현장 교사들이 학교 및 학급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히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한편, 교사와 학교 행정가들의 다문화 교육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이 중핵적인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밖에도 정부와 대학, 기타 민간 및 사회단체들의 몫도 사회적 지지로서 매우 중요하다.

요컨대, 다문화 교육 관련자 모두가 각각의 몫을 충실히 할 뿐 아니라, 서로가 협력하여 다문화 가정은 물론 일반 학생들을 다문화 사회 속의 시민으로 길러낼 때 새로운 다문화 사회를 창조적이고 행복한 삶의 곳으로 만들어 낼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다만, 현 시점에서 우려되는 한 가지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다문화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문화 가정 학생과 일반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교과 프로그램과 다문화 가정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적응 프로그램으로 대별된다는 점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나라의 다문화 교육은 주로 다문화 가정 학생만을 위한 것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당장은 매우 필요한 인식이며 접근이지만 좀 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안목을 가지고 다문화 사회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학교는 교과 프로그램에 비중을 두고 다문화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한국 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다문화 교육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 · 고 · 문 · 헌

- 교육인적자원부(2007). 다문화 가정 자녀 현황 통계 자료.
- 김정원(2006). 국내 몽골 출신 외국인 근로자 자녀 학교교육 실태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6(3), 95-129.
- 박선영(2005). 다문화 교육 활동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문학과 음악의 통합적인 접근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신라대학교 대학원
- 법무부(2007). 2006년도 출입국관리통계연보.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 오은순 외(2007).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방안 연구(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I 2007-2
- 이귀우(1999). 비판적 다문화 주의와 문학연구. 인문논총 6집, pp.59-75. 서울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이성은, 오은순, 성기옥(2002). 초 · 중등 교실을 위한 새 교수법. 서울: 교육과학사, 68.
- 장영희(1997). 유아를 위한 다문화 교육의 개념 및 교수방법에 대한 이론적 고찰. 성신연구논문집, 제35집, 295-314.
- 장인실(2006). 미국 다문화 교육과 교육과정. 교육과정연구, 26(4), 27-53.
- 조영달, 윤희원, 권순희, 박상철, 박성혁(2006b). 다문화 가정 교육 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 2006-지정-21.
- Banks, J. A. (1988). Multiethnic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Boston: Allyn and Bacon.
- _____ (2004). Multicultural education- history development, dimensions, and practice. In J. A. Banks & C. A. Banks (Eds.), Handbook of research on multicultural education (2nd ed.) (3-29). JOSSEY_BASS.
- _____ (2005). Multicultural education: characteristics and goals. In J. A. Banks & C. A. M. Banks (Eds.), Multicultural education- issues and perspectives (5th ed.) (3-30). WILEY.
- _____ (2008). 다문화교육 입문.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Bennett, C. I. (1995). Comprehensive Multicultural Education : Theory and Practice. MA : Allyn & Bacon.
- _____ (2007). Comprehensive multicultur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6th ed.). PEARSON.
- Coelho, E. (1998). Teaching and learning in multicultural schools. UK: Multilingual Matters Ltd.
- Frazee, B. N. & Rudnitski, R. A. (1995). Intergrated Teaching Methods. NY: International Thomson Publishing Inc.
- Ramsey, P. G. (2004). Teaching and learning in a diverse world (3rd ed.). TEACHERS COLLEGE PRESS.
- Sleeter(2008). Multiculturalism, Globalization, and the Politics of Knowledge. 한국교육과정학회 · 한국초등교육학회 국제 컨퍼런스 발표 자료
- Suleiman, M. F. (2004). Multicultural education: A blueprint for educators. In G. S. Goodman & K. T. Carey (Eds.), Critical multicultural conversations (9-22). HAMPTON PRESS.
- Zaw, S. K. (1996). Locke and multiculturalism: toleration, relativism, and reason. In R. K. Fullinwider (Ed.), Public education in a multi cultural society(121-155).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미디어 속에 나타난 젠더 코드

- 엄마가 지켜라 -

박 해 경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

한국 여성의 삶이 개선되고 지위가 높아졌다고 한다. 가장 큰 변화는 여성 일과 남성 일의 구분이 약해진 점이다. 직업을 갖는 것이 여성에게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지는 오래고, 여성 취업이 혼수 준비를 위한 한시적인 것으로 여겨지지도 않는다.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꾸준히 높아져서 여성의 영역은 가정이라는 통념이 깨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어머니 노릇뿐 아니라 아버지 노릇조차 변화시키고 있다. 아이 양육은 더 이상 어머니만의 책임은 아니어서, 가족과 사회 공동체 전체가 나누어야 한다는 의식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자녀와 놀아주고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만드는 다정다감한 아버지가 칭찬 받는 시대다. 산업역군으로서 생계부양의 책임만 하면 가정일은 몰라라 해도 되었던 무뚝뚝한 아버지들은 재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하라는 아내의 채근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의 와중에 알파걸이나 여성 CEO 등 성공의 이미지와 결합한 여성상이 등장하고 여성 리더십이 본격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더 이상의 여성 지위 향상 조치들이 필요한지 회의를 품는 이들도 생겨나고, 여성이 차별 당했다는 주장을 의심해 오던 사람들은 아예 분노를 터뜨리기도 한다.

우에노 치즈코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에서 근대 성별분업체계를 역사적 과도기로 보았다. 성별분업이 근대에 강화되었고 지금 우리 사회의 성별관계의 변화와 갈등은 성별분업체계가 도전에 직면하면서 빚어지고 있다는 것에는 대부분의 여성주의 연구자들이 동의하는 바다. 하지만 변화에 대해서 목적사관이나 단선적 흐름을 가정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

가 있다. 역사 변화의 법칙을 따지는 것보다는 변화의 방향을 주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변화 이면에 퇴행과 지체가 일어나고, 여러 방향의 흐름들이 충돌하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 그러한 경합의 과정에 개입하는 실천적 지식이 시작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한국 여성의 삶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여성지위 향상이라는 총론적 평가가 무색할 만큼 괴로운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이면에 비정규직 등 고용불안정화, 여성 내부의 지위 차이 심화, 뿐만 아니라 OECD 국가 중에서 여성교육수준은 높으면서도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과 정치대표율이 낮은 기이한 사회라는 점 등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지체나 퇴행이 노동시장과 국회의사당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에 대한 상상과 일상의 꿈속에서도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하려고 한다. 상상과 욕망이 재생산됨으로써 여성의 사회 참여를 제한하는 지식과 언어를 유지시키고 부활케 한다. 이러한 단서를 대중매체를 통해서 찾아내는 것이 이 글의 목표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등 사회참여를 가로막는 것은 여성은 일차적으로 가족 및 가정과 연관시키는 지식이다. 이에 이러한 측면에서 짚어 볼 필요가 있는 텔레비전 드라마와 광고, 그리고 최근 한국 영화 몇 편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텔레비전은 대중이 쉽게 접하는 매체이며, 영화 감상이 문화생활에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스케치가 우리 사회에 생생히 살아 있거나 은밀히 재생산되는 가부장제 언어와 지식의 일부를 보여주리라 생각한다.

집은 여자다

대중매체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지만 텔레비전이 차지하는 위상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 여가활동 조사를 보면, 2003년의 경우 평일에 여가활동으로 텔레비전을 시청한다는 응답이 22.9%로 가장 높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이상 연령대에서 평균보다 그 비율이 높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의 경우에서 가장 높고, 생산직의 경우가 그 다음이다. 주부는 25.1%로 세 번째로 높은 집단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하루 평균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2.6시간인 데 비해 여성은 3시간이다. 30대 이상 기혼여성의 일상생활에서 텔레비전 시청의 중요성이 큰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텔레비전의 드라마와 광고는 암암리에 여성으로서의 삶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더욱이 텔레비전 광고는 가정의 소비 주체로 알려진 주부, 즉 기혼여성을 직접 겨냥한 것이 많다.

한 대기업 건설회사의 유명 브랜드 아파트 광고는 적극적으로 집과 여성을 연결시킨다. 어린 여자 아이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엄마를 찾는다. 여기 저기 둘러보며 “엄마아~”라고 부른다. 끝내 엄마가 집에 없다는 사실을 안 아이는 “엄마가 어디 갔지? 집에 엄마가 없으면 집이 텅 빈 것 같다. 집은 엄마다,” 라고 말한다.

이 광고는 아파트의 품질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으며 단지 집에 대한 우리의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엄마가 없으면 집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은 성별분업의 근대를 살아온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느낌이다. 우리에게 집은 따뜻한 밥을 지어 놓고 언제나 가족을 기다리는 어머니가 계시는 공간이다. 어머니의 잠시 외출도 집이 텅 빈 것처럼 만들 만큼 집은 곧 어머니, 즉 여성이다. 이 광고는 어머니와 동일시된 집의 이미지를 상기시킴으로써 집에 얹힌 근대

적 정서를 다시 불러일으킨다. 이 광고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막으려는 어떠한 의도도 갖지 않았을 테지만 일하는 어머니들에게 강요된 죄책감을 부채질하고 아내의 취업을 바라는 남편은 못나가나 못된 남자라는 통념마저 재생산할 수 있다. 이런 광고가 맞벌이가 당연히 된다는 지금, 텔레비전의 광고가 그려내는 집의 이미지라는 사실이 놀랍지 않다면 이상하다.

시리즈물인 이 광고의 다른 편에서는 여성이 직업적 성공을 하는 것보다 가사에 전념하는 것이 더 “대단한” 일이라고 노골적으로 말한다. 간부직에 있는 친구의 차에 동승한 여성은 업무에 관한 친구의 통화를 들으며 “대단한데”라고 말한다. 하지만 한 고급 아파트 단지에 다다르자 옆에 있던 그녀의 딸이 “와, 우리 집이다”라고 말한다. 화면은 유명 브랜드 아파트 단지를 비추고, 그 때 친구는 “네가 더 대단한데”라며 부러워한다.

여성의 취업이 결혼과 출산에 의해 단절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성공의 가치가 지배하고 삶이 기획의 문제가 되고 있는 세상에서 자녀가 있는 여성들 역시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그들의 성공을 위한 고민은 취업과 전업 어머니 사이의 저울질에서 시작되고, 맴돈다. 전업주부가 자신의 삶이 성공했다는 증거를 취업 어머니와의 비교를 통해 얻으려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매우 많다. 취업 여성은 부족한 어머니라는 이야기는 전업주부의 성공을 확인시켜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 여겨진다. 이 광고는 여성들의 이러한 고민과 정당화 욕구를 의식하면서, 전업주부에게 더 위대한 성공을 거두었다는 상찬을 부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광고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여기에서 그

치지 않는다. 전업주부가 유명 브랜드 아파트를 어떻게 샀을지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녀의 성공은 경제력이 있는 남편을 가짐으로써나 부동산 투자를 통해 거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여성의 성공은 성공한 남편을 가짐으로써, 또는 그것과 더불어 투기와 투자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만연된 신자유주의적 투기자본의 흐름을 잘 탐으로써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 경기 붐에 이해관계를 가진 건설사로서 부동산 투자 열기를 반기지 않을 수 없어서일까. 이 광고는 자사의 아파트를 부동산 투기/투자 성공의 상징으로 내세우며 직업보다는 부동산 투기/투자가 성공의 길이라고 암암리에 부추기는 셈이다.

연구들은 기혼여성의 취업의사가 남편의 직업 지위 등 경제력에 대해 탄력적이라고 보고한다. 이 광고는 남편 혼자 벌이로도 모든 가족의 생활이 가능해서 이미 취업 의사가 없는 계층의 여성들만을 겨냥한 것이다. 이것은 부자 마케팅의 한 가지일 뿐이고, 마케팅 전략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 광고는 단지 돈의 가치만이 아니라 돈을 버는 방법(투기)과 살아가는 방법(전업주부로 살기)에 대해서까지 가치를 담고 있다. 여성의 취업을 방해하는 사회 제도와 관념들에 맞서 싸워 온 여성들은 이런 광고에 대해서도 싸움을 걸어야 하지 않을까.

이 광고 시리즈물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삶도 변화되었다. 노동과 가정을 분리시키고, 노동을 남성의 세계로 만듦으로써 노동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했던 근대적 패러다임은 도전에 직면하였다. 광고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다. 집으로 돌아와 정서적인 삶을 나누는 아버지가 등장한다. 자녀와 뛰어놀고,

꽃이름을 가르쳐주고, 무등을 태워준다. 그런데 그 광고들 중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그런데 집은 그가 머물며 기다리는 장소가 아니라 그가 돌아가는 장소이다. 이 광고에서 남성을 아버지로 호명하고 아버지를 집안에 군림하는 가장이기보다 정서적 주체로 만들고 있지만, 남성은 집밖에서는 바쁘거나, 굳세거나, 바람 같이 떠도는 존재로 그리고 있다. 남성에게 집밖에서 머무는 것은 일상이며, 집과 집밖의 세계는 양립 가능하다. 이것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와는 대조된다. 앞의 광고들에서 집은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장소이거나, 여성을 더 대단하게 만드는 장소라고 했기 때문이다.

남성을 아버지로 호명하고, 아버지를 자녀를 돌보는 정서적인 주체로 재현하는 것은 변화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남성에게 일터와 가정의 근대적 분리가 완료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여성에게는 전통적인 방식을 미화시킨다. 이로써 집의 여성화는 지속된다. 이러한 재현은 여성의 삶을 두 겹으로 은폐시킨다. 한 겹의 은폐는 현실적으로 노동과 가정의 두 세계를 오가는 것은 남성이기보다 여성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다. 이 여성들의 존재가 은폐되면서 이들이 겪는 이중삼중의 부담과 갈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그저 전업주부가 있고 가정적이 된 아버지가 있는 행복한 집이 보일 뿐이다. 또 다른 한 겹의 은폐는 남성과 아이의 휴식을 위해 따라야 하는 여성의 노동이다. 집이 남성에게는 돌아가서 아이와 놀고 쉬는 낭만적인 장소가 될 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노동이 있어야 한다. 아버지들이 가정으로 돌아올 때 여성들처럼 제2의 근무가 시작되지 않는다.

화면의 뒤편에서 묵묵히 수행된 여성의 노동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집의 낭만화는 여성의 갈등과 노동의 흔적을 지우고 있다.



*출처 : <http://www.raemian.co.kr>

위의 광고는 10년 전, IMF 직후에 방송되었고 광고상도 받은 조미료 광고를 떠올리게 한다. 특히 10년 전 구제 금융의 경제위기는 여성도 돈을 벌어야 한다는 관념을 빠르게 확산시켰다. 그 후로 또 다시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사회이니 만큼 돈벌이에서 남녀 구분이 있을 수 없다는 관념이 자리 잡았을 법도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10년 전 조미료 광고에서, 퇴근하여 돌아와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은 아버지에게 아들이 “아버지, 먼저 드세요”라고 하자, 아버지는 “내가 이 맛에 산다”고 대답한다. 어머니로 등장한, 지금 국민 어머니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배우가 한 마지막 내레이션은 “가족은 고향입니다. 고향의 맛 ooo”였다. 집은 그때나 지금이나 남성에게 돌아와 쉬는 곳이고, 그의 휴식은 그의 아내의 보이지 않거나 이름 없는 노동에 의해 준비되는 것이다.

이 조미료 광고는 어머니의 가사노동은 가족을 위한 노동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노동만을 가족을 위한 것으로 의미화하여, 식탁에서 가장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으로 아버지 노동을 치하하였다.

관객의 대다수는 그 광고에 감동하였을 것이다. 노동의 아버지화 또는 남성화라 할 만한 이러한 현상은 2009년 오늘에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심지어 어머니가 아버지와 함께 생계노동을 하여도 그 수고는 오로지 아버지의 것으로 의미화되기도 한다. 얼마 전 엄청난 수의 관객을 불러모은 영화 <워낭소리>(이충렬 감독, 2008년)는 마지막에 “유년의 우리를 키우기 위해 헌신했던 이 땅의 모든 소와 아버지들에게 이 작품을 바칩니다”라는 자막을 내걸었다. 노동을 통한 헌신은 아버지의 것이고, 소의 것일 망정, 남편과 함께 농사지며 살림하고 자식을 낳아 기른 어머니의 것으로는 새겨지지 않았다. 그 자막은 얼마쯤의 관객의 감동을 방해하였을까.

힘을 가진 아내들

여성을 집에 머물러야 하는 존재로 그리는 대신 집에 있는 여성에게 힘이 부여되었다. 이것은 오래된 ‘강한 어머니상’을 떠올리게 하지만, 지금 변화의 특징은 어머니의 위치에서가 아니라 아내로서의 위치에 힘이 부여되었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남성은 힘을 잃거나 권위가 줄어들었다. 아내들은 맞바람을 피고, 이혼을 요구하고, 남편에게 더 이상 당하고 살지 않으려 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성평등 주장이 확산될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드라마들이 불륜을 소재로 하였다고 비판되기도 한다. 하지만 불륜이라는 말은 윤락이라는 말처럼 제도적으로 지지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윤리와 비윤리로 이분화하고 전자의 윤리문제에 대해서는 반성의 여지를 두지 않은 표현이다. 소위 불륜 드라마는 대개 혼외 관계를 주제로 하는데, 문제는

혼외 관계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다루어지는 방식이다.

혼외 관계가 드라마의 소재로 다루어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결혼과 성에 대한 태도 변화를 반영하기도 한다. 결혼과 결합한 성애적 연애가 근대적 드라마의 중심이었지만, 최근 몇 십 년 사이에 성애적 추구가 강화되면서 결혼 제도를 흔드는 경향이 있다. 특히 1990년대를 지나면서 이러한 경향은 눈에 두드러졌다. 1996년 MBC에서 방영된 드라마 <애인>이 유부남, 유부녀의 사랑을 눈물겹고 안타까운 열애로 재현했고, 1998년에 개봉된 영화 <정사>는 유부녀의 연하 남성과의 성적 추구를 정열적 사랑으로 묘사했다. 이러한 재현물의 여주인공은 여성 관객의 비난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동정과 동일시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서 보자면, 최근 남편의 외도에 대한 아내의 복수극들은 복고적인 측면이 있다. 이른바 ‘막장 드라마’라는 이름으로 분류되면서도 인기리에 방송되던 SBS의 <아내의 유혹>(오세강 연출, 김순옥 극본, 2008.11.-2009.05)에는 자기가 버린 아내에게 유혹 당하여 버림을 받는 남성이 등장한다. 하지만 주로 복수는 외도 상대 여성을 향하고 있다. 5월초부터 방영되고 있는 SBS의 <두 아내>(윤류해 연출, 이유선 극본)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외도 상대였던 여성과 재혼하려던 남편이 사고를 당하여 아내를 기억할 뿐 애인은 알아보지 못한다는 설정의 이야기이다. 이 드라마들의 테마는 아내의 위치에서 부부 권력 관계를 재조정한다는 점에서 많은 여성들의 관심과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하지만 아내의 복수극이 여성 관객에게 무엇을 줄까. 대리 만족과 카타르시스를 주었을까? 많은 사람

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이 카타르시스라면 원한의 감정이 해소되어야 하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여성들에게 복수심만 더 키워주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드라마는 카타르시스의 기회가 아니라 복수의 여행 연습의 기회인지도 모른다. 복수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기보다는 자신마저 파괴할 정도로 복수는 문제가 아닌가 해서다.

이러한 생각이 단지 기우가 아닌 것은 잔혹한 복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드라마가 아닌 현실에서도 보기 때문이다. 인터넷 여성 전용 카페의 익명게시판에 여성들이 남편의 외도에 대해 엄청난 복수를 감행한 이야기와 함께 차후의 복수방법을 의논하는 글들이 올라온다. 드라마에서처럼 복수의 날은 주로 상대 여성에게로 향한다. 여성들의 복수는 상상보다 무서웠다. 그 글들을 통해 본 여성의 복수는 두 여성을 말할 수 없이 참혹한 전쟁터에서 구르게 하는 것이었다. 여성의 외도에 대해서는 호기심 어린 글뿐 아니라 핀잔의 글도 함께 올라오는데, 남편의 외도에 대해서는 비난 외에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 틈이 없다. 조금이라도 다르게 생각하는 글에 대해서는 외도녀라는 딱지를 붙이며 여러 명의 여성들이 공격을 퍼붓기 때문이다. 여성의 성적 추구와 외도에 대해서는 관대해지고 있으면서도 남편의 외도 문제로 가면 엄청난 정신적 분열 상태에 빠지는 것 같다.

몇 십 년 전만 해도 첩의 집에 들이닥쳐 머리채를 잡고 세간을 부수는 정실의 이야기가 소설과 드라마에 많이 등장하였다. 여성이 남편의 사회경제적 지원 없이는 자립하기 어렵고, 이혼은 불운의 낙인이 되던 시절의 이야기이다. 지금은 부부 사이에 사랑이 없다면 살 수 없다고 하는 여성들이 많아진 세상이다. 조사에는 이혼에 대하여 관용적인 태도를 가

진 사람들이 증가했고, 특히 여성의 경우 더욱 관용적이라고 보고된다. 연구들은 여성들의 이혼에 대한 태도 변화를 여성의 경제력 증가 등 사회적 지위 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한다.

아직도 상호 파괴적인 복수로 남편의 외도에 대응하는 여성들이 있는 것은 여전히 많은 여성에게 결혼이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고, 경제적인 부양과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여 착잡해진다. 남편의 외도로 인한 결혼의 위기가 여성에게 자신마저 파괴할 이유가 될 만큼 일생일대의 사건으로 여겨진다면 염려할 만한 일 아닌가. 결혼 말고도 인생의 의미를 걸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테니 말이다.



*출처 : <http://tv.sbs.co.kr/temptation>

남편을 향한 복수의 이야기가 공감을 얻는다는 사실은 남성들에게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효과는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솔직히 남자들이 좀 위협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 없다고는 못 하겠다. 하지만 그 드라마들에서 남편은 미움의 대상이지만, 여전히 여성에게 남성은 불행한 삶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존재다. 아름다운 외모와 살림솜씨 등 전통적인 여성성은 새로운 남성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끈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드라마가 결혼 생활에서 받은 상처로

인하여 다른 삶을 상상해 보는 여성들에게 울림이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여성의 행복에 대한 상상이 남자와의 사랑으로 맺어진 결혼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즉 19세기에 만들어진 근대적 이상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그 진부한 상상력은 답답하다.

복수 드라마에서 여성의 힘은 세어졌지만 그 힘은 아내로서의 위치에서 발동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사업과 성공 모두 결혼에서 받은 상처에 대한 복수를 위한 것으로 의미화 된다. 그러한 드라마는 여전히 남편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어서 여성의 일차적 관심사를 결혼생활에 한정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복수 드라마에 한정되지 않는다. MBC의 <내조의 여왕>(고동선 외 연출, 박지은 극본, 2009.03-05)에서도 여성의 힘은 결혼 생활에 집중된다. 성공한 남편을 통해 신데렐라가 되려던 여성은 못난 남편을 도와 출세시키는 평강공주의 길을 택한다. 그녀의 전술이 아내 노릇을 통해 남편을 성공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젠더 이분법의 답습이다.

그 드라마에서 남편을 출세시키는 여성의 힘과 능력은 남편에게는 득이 되지만 다른 여성들에게는 위협이 된다. 여성들의 관계는 경쟁적이고 대립적으로 그려지기 때문이다. 그 여성이 긍정적인 선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여성의 시선이 아니라, 남성의 시선이다. 다른 여성들에게 그녀는 무식하고 꺾고 싶은 경쟁상대일 뿐이다. 남성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바꾸려는 여성은 남성을 도구화하거나 자신을 희생하는 존재로 그려지지 않는다. 그것이 여성의 능력을 발휘하는 현명한 방법이라는 듯이 그녀는 당당하며, 그녀의 그러한 태도는 남성들에게 깊은 애정을 불러 일으킨다.

대다수의 기혼여성들은 취업 의사를 가지고 있지만 경력 단절로 취업에 좌절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가사 책임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에 나서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실업자로 분류된다. 많은 기혼여성들에게 취업은 여성 개인의 삶뿐 아니라 가족 경제를 위해서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 여성들의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더욱이 남성의 고용이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남편 내조에 힘쓰는 여성상의 출현은 남성 판타지가 만들어낸 유령의 돌출에 가깝다.

엄마 없니?

힘센 아내의 출현은 새롭지만 힘센 어머니상은 자주 출몰해 왔다. 역사의 수난을 해쳐 온 가족소설들에서는 강한 어머니상이 자주 등장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에서 어머니의 강인함은 희생과 거의 동의어다. IMF 경제위기시에도 곧장 강한 어머니상이 소환되었다. 1998년에 홀어머니가 자녀를 키우는 복고 드라마 <6남매>(이관희 연출, 최성실 극본, 1998.02-04.)가 방영되었다. 강한 여성상의 출몰은 약한 남성상의 출몰과 짝패를 이룬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가족 수난 소설은 아버지 부재를 특징으로 하며, 경제위기 시에는 아버지는 병들거나, 약한 모습으로 재현되었다. ‘고개 숙인 아버지’ 담론이 확산되었고, 여성은 난데없이 치료사의 능력과 권력을 부여 받으며 남편의 기를 살리고 가정 경제를 일으키는 주문을 받았다.

경제가 다시 어려워지고 살기가 불안해진 현실이 요즘 영화 <마더>(봉준호 감독, 2009년)의 강하다 못해 거의 광적인 어머니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이 영화는 장애를 가진 아들, 홀어미, 가난, 무지는 살아남기 위한 악착과 자식에 대한 집착을 설명해주는 장치다. 이 어머니의 자식애는 동반자살을 시도하게 할 정도이다. 어머니는 “너는 난데” 라며 아들의 미래 걱정이 함께 죽는 것을 택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것에 대한 미안함으로 자식에 대한 정성은 더욱 살뜰해졌더라. 장애인으로서 차별 받는 것이 안쓰러웠던 어머니는 아들이 억울한 오해로 살인자로 잡혀가자 아들을 구하러 나선다. 하지만 사회는 바보 아들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아무도 힘없고 무식한 어머니의 편을 들어 주지 않는다. 심지어 변호사에게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 어머니는 스스로 범인을 찾아 나선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는 아들의 살인 장면을 목격한 증인을 만나게 된다. 아들을 구하는 데 매달리는 어머니는 그 증인을 살해하고 그 집에 불을 지름으로써 살인을 은폐한다.

이 어머니의 유일한 가치기준은 어미의 자식 사랑이다. 이것을 가장 강하게 전달하는 장면은 풀려나게 된 아들 대신 잡혀온 피의자를 어머니가 만날 때이다. 자신의 아들처럼 지능이 모자란 장애인인 피의자를 보면서, 그녀는 “엄마 없니?”라고 묻는다. 그를 구하러 나서 줄 엄마가 없다는 사실에 그녀는 씹게 운다. 그때 그녀의 눈물은 영화에서 유일하게 그녀가 자기 자식이 아닌 타인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다. 그 장면에서 그녀의 자식애는 보편적 인간애로 확대된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에서 나온 인간애이다. 그 장면은 모든 인간에게 뜨거운 사랑과 관심을 바칠 어머니가 필요하다는 영화 속 어머니의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한다. 관객은 그

녀의 잘잘못을 따지는 데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성을 뛰어넘고 선악의 경계를 뛰어넘은 어머니의 자식 사랑의 울림은 다른 모든 가치와 시시비비를 압도한다.



*출처 : <http://www.mother2009.co.kr>

이 영화는 인간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가장 통렬한 예를 모성애에서 찾은 것 같다. 영화 속의 모성애가 광적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있을 법한 인간의 이야기로 설득력을 가지려면, 우리 사회의 모성애에 대한 관념과 상통해야 한다. 이 영화 속의 모성애는 과도하기는 하지만 영화 밖의 모성애의 연장이기 때문에 그럴 듯한 이야기가 된다. 영화 밖의 자기 자식밖에 모르는 모성애는 이미 과도하며, 이미 반사회적이다. 이 영화가 이러한 모성애 신화를 의도했던 아니건 간에 어머니는 놀라운 힘으로 자식의 목숨을 구하려고 하며, 모성애는 징그러운 정도로 원초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신화를 재생산한다. 하필이면,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사회적으로도 어두운 이때에 하필이면 약해 빠진 남성을 등장시키면서 말이다.

봉감독이 2006년에 발표한 영화 <괴물>에서는 한 소녀를 구하기 위해 가족이 나선다. 오합지졸이라 할 수 있는 가족들이 괴물에 맞서는 영화는, 믿을 것이 없는 사회에 가족만이 희망이라고 말하는 듯하였다. 하지만 영화의 결말에서 혈연이 아니라 같이 밥을 먹으며 보살피는 사이가 가족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그 영화에서는 어머니가 등장하지 않는다.

세상 살기가 더 험난해진 것일까. 이제 그의 영화에는 어머니가 등장하여 새끼를 보살피는 짐승 같은 힘을 보여주며, 영화는 생물학적 본질론의 심연으로 빠져 버린다.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어머니의 힘이 어떻게 발휘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 영화의 장면마다 힘을 쥐어짜내는 듯한 어머니의 힘겨운 투쟁이 이어진다. 영화 자체도 배우 김혜자의 힘을 쥐어짜내며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연출의 힘도 있을 테지만, 김혜자의, 김혜자에 의한, 김혜자를 위한 영화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영화는 배우 자신의 어머니로서의 경험과 연기력에 크게 의존한다.

이 영화의 모성신화와 관객의 관계는 어떠한가. 영화 속 어머니가 “엄마 없니?”라고 물을 때 삶의 긴장을 풀어주는 위로를 느끼며 뜨거운 눈물이 솟았다면? 어쩌면 관객들은 국민 어머니가 나오는 어머니 영화를 보러 갈 때 이미 모성애가 주는 감동과 위로를 기대를 했을지 모른다. 감독은 인터뷰에서 “아들을 위해 어머니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다. 사랑의 대상이 아들인 것도 단지 우연은 아닐 것이다. 어려운 시기에 항상 그랬듯이, 어머니 여성의 힘을 쥐어짜냄으로써 아들 남성의 세상살이 고비를 건너는 불온한 위로로 견디는 시대인가.

맺으며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여성의 삶과 요구도 달라지고 여성상 역시 변화한다. 드라마, 광고, 영화의 내용도 이러한 변화에 따라 다른 여성상을 재현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재현물은 전해 내려온 여성상이 재생산되면서 변화도 섞여 있는 혼합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혼합물에서 변화와 재생산을 어떻게 읽어낼 것이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것은 일상을 살아가는 수용자들의 몫이다. 걸려내고 재해석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관점이 필요하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라는 식의 생각은 재현과 현실의 관계에 대한 적절한 이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정 내용의 이야기나 인물이 등장하거나 반복되고 또는 그것에 대한 열광적인 반응이 있는 것은 확실히 현실과 재현 사이의 관계에 대해 질문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의 힘이 단지 아내로서의 삶의 변화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남성 중심의 관점에서 위해하거나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으며, 다른 여성에게 복수하거나 경쟁하기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여성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다른 여성과 약자에게 힘을 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여성에 대한 다른 상상과 이해가 필요하다. 드라마에서 특히 기혼여성의 삶의 의미를 결혼생활로 환원시켜버리는 구태를 벗어야 가능할 것이다.

힘을 가진 아내나 강한 어머니상의 출현은 남성이 약해진 세태를 반영한다. 서로 힘을 나누고 위로를 주고받는 것이야말로 인간관계의 소중한 면이다. 하지만, 그것이 가족 안의 여성에게서 구해질 것이라고 믿는 사회는 더 안전하고, 더 보편적이고, 정말로 힘을 가진 사회적 장치와 제도를 만들지 못한다. 그러한 사회적 비용을 들이는 대신, 이미 그 짐을 지고 있는 여성들에게 계속 떠맡기기 위한 술책으로 그러한 믿음을 반복 생산할 뿐이다. 언제나 마지막에 꺼내는 카드, 아내이자 어머니로서의 여성의 힘을 다시 짜내려는 복고적 태도는 우리 시대가 이래저래 막장임을 말해 주는 것인가.